



A WOMAN, SAINT

January, 2017 | 백지연, 황선우

page 1 of 7

김기라
Two Circles #16 Pink #01 (2016)
LED 조각과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100cm circle



A WOMAN, SAINT

작가 김기라는 화려함을 걷어낸,
깨끗한 아름다움을 가진 배우 하지원의 매력에 주목했다.
정제된 동그라미는 성스러운 여인을 상징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순환과 부드러운 여성성,
분홍색의 의미에서 이번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도 맞닿아 있다.

photographs by
KIM YEONG JUN



프린트 드레스는 **Giambattista Valli** 제품
수작업 데칼코마니로 디테일 장식 화한
링헤드 디자인 5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가방은 **Delvaux** 제품.

창명한 초록빛 에메랄드가 아름다운 화이트
프링클랜드 컷 다이아몬드, 화이트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세팅의 메디테리니언 가는
하이 주얼리 테크닉으로 Piaget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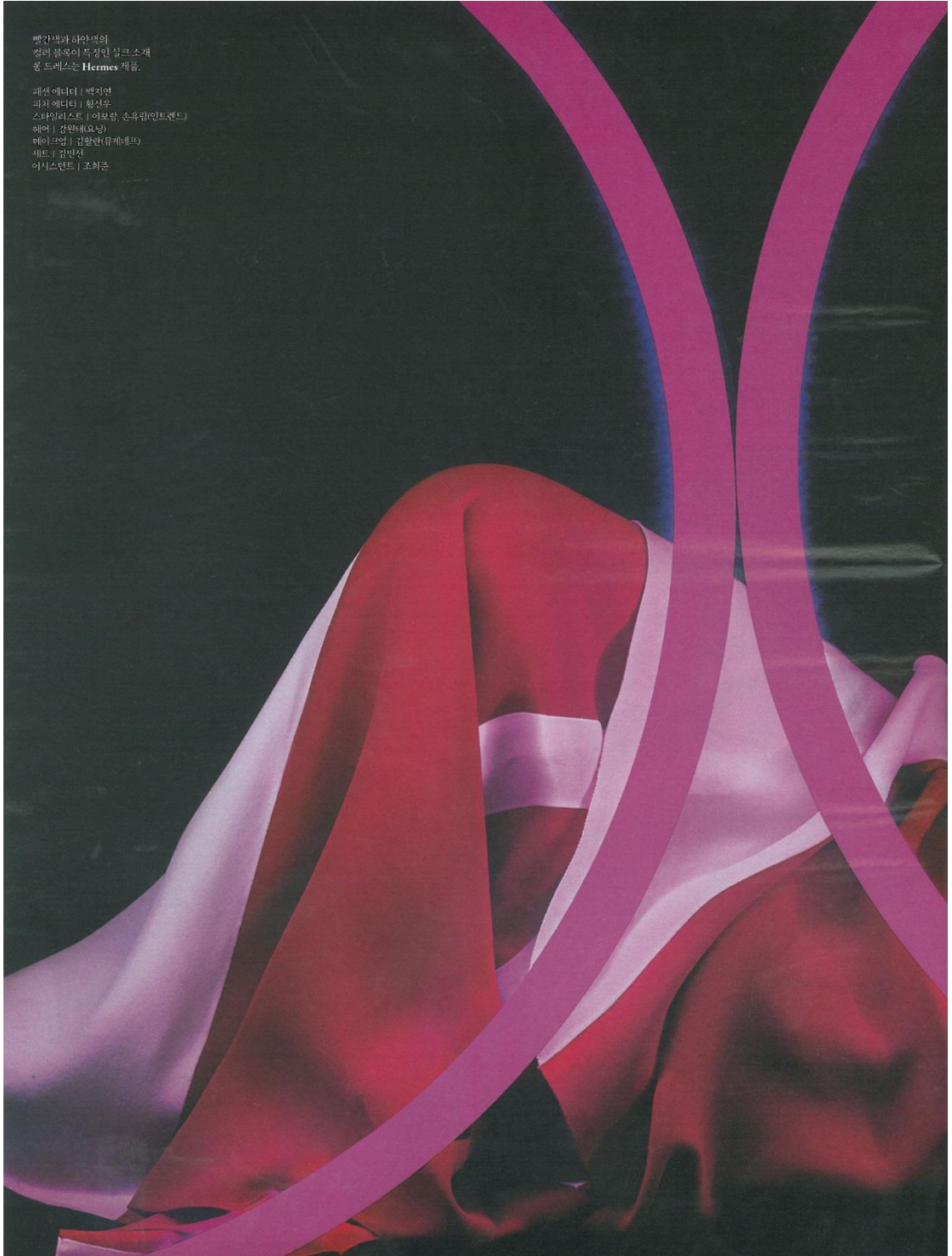




미니멀한 실루엣의 코트와 드레스,
스트랩 슈즈는 모두 Bottega Veneta 제품.

빨간색과 하얀색의
결리 문様が 특징인 실크 소재
몽 드레스는 **Hermès** 제품.

패션 에디터 | 백가영
피피 에디터 | 황성우
스타일리스트 | 이보람, 손유림(인드렌드)
메이크업 | 강원태(오닝)
헤어 크림 | 김할연(뮤제네프)
세트 | 김민선
어시스턴트 | 조희준





유아인 + 권오상

"더블유에는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유방암 자선 캠페인 디너에 초대해주셔서 참석했는데, 그때는 적당한 작품이 없어 기부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권오상 작가는 이 프로젝트의 출발 시점에 이미 승낙의 답과 함께 기다려주었고, 그의 파트너로 배우 유아인이 정해지면서 두 사람은 10월 중 가장 먼저 짝을 이뤄 프로젝트의 경쾌한 시작을 곁들였다. 북한남동의 은행일이 있을 땐구기 전, 아직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옥상 좌석이 없을 수 있을 무렵에 이뤄진 첫 미팅은 일단 자리를 벌여놓고 나니 에디터가 거를 일이 별로 없었다. 그 자신이 전사를 기획하며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하는 유아인은 권오상 작가의 이전 작업부터 컬러를 운영하는 데 측은 애로사항, 미술의 시대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화제를 오가며 질문을 던지고 또 대화를 이끌었다. 많은 아티스트와 미술관, 큐레이터와 도시인들의 이름, 사회가 알고 있는 병종과 요즘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의 이야기로 등장했다가 지나갔다. 그 사이 유아인은 '시대정신'이라는 두 어절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한 시대, 그리고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본인의 좌표와 의무에 대한 자각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권오상 작가가 회상하는 유아인의 첫인상이다. 뭔가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는 데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한 가운데 최근의 '일리프(부조) 시리즈'처럼 화수가 낮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사용하며 개시는 효과라던가 원근법을 무시한 큐비즘 조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테이블에 올랐을 때, 예측 가능한 사진 조각을 기대하고 있을 벌인 에디터의 우러가 표정에서 드러난 모양이다. 유아인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작가님 편이예요." 유아인이 자신의 트랙들과 힘을 합쳐 시도하는 콘크리트의 여러 가지 일, 혹은 그가 몰두해 있는 시대정신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미학적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에게서 유연함과 여유로움을 느꼈다는 것이 이 배우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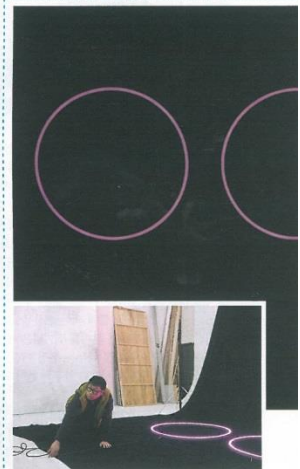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가슴까지 나오는 흉상 사이즈의 사진 조각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런 드문 기회를 최대한으로 펼쳐 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공리는 다섯 점의 흉상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미국 본지와 함께 진행한 지난 12월호 더블유 인터넷에서도 언급했던 작가는 유아인과의 협업을 새로운 행사의 작업을 실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기존의 사진 조각인 테이프를 타이핑 인쇄의 부분부분을 사선으로 찍어 붙여서 실제 인물에 가깝게 만든다면, 그 배열을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저는 아예 더 해체된 결과물을 줄 일었어요." 유아인이기도, 유아인이 아니기도 한 다섯 개의 자신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찌나고 분자, 그는 사실 담백하게 거울을 대면하는 일이 드물다고 답했다. 배우의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온전하게 본인으로는 바라봐지지 않는 대상이라며, "이런 작품은 제가 보면 긴장하기도 해요. 저보다는 관객들이 이런 새로운 접근을 어떻게 봐주는지가 중요할 테고요." 대중 친화적인 혹은 컨벤터리리한 전사를 다양하게 기획하는 시도의 활력이 미술계에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권오상 작가는 이 다섯 점을 모아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전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훗날의 미술관이 아닌 "지금 현재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었죠?"

작가 노트

미술사에 있어 특히 기록메트 같은 조각가가 낯선 화화, 그리고 마티스 같은 화가가 낯선 조각을 좋아합니다. MoMA에 소장된 마티스의 연작 'Yannette I-V'에서 이번 작업의 아이디어를 착안했는데,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흉상 작품으로 조각하면서 동시에 회화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었던 저의 초기 작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교적 정교한 사진 조각부터 눈코입이 제제리러를 떠나 추상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원 + 김기라

"언제나 예술의 한 분야일까요, 사회와 문화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주변에서도 유방암을 앓는 분들을 보는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인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여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더블유에서 제1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걸 선택 수락하며 하지원이



한 얘기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건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던 하지원은 과연 과감하고 대담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하는 커미션 워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기라 작가와의 미팅을 위해 방문한 하지원의 기획사 사무실에는 아시아의 팬들이 사랑을 담아 그려 보낸 초상이 이미 가득했으니까. 단순한 행사 안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담자는 김기라 작가의 아이디어는 이 배우의 바람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더블유의 아트 프로젝트로 탄생한 이번 10개의 아트피스를 미니멀리즘/리얼리즘의 잣대로 줄을 세운다면 하지원과 김기라 팀의 작품은 그 원본 극단에 있을 것이다. 핑크색 원 두 개는 예측시 소개로 만든 LED 조명으로 벽에 설치되어 전원을 켜면 빛이 들어온다. 트레이시 에먼이나 프랑수아 모렐레의 내은 아트를 떠오르게 하지만 훨씬 뜬금없고 견고하다. 허기에 하지원이 고른 키워드들을 남향한 내레이션을 결합한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으로 완성하는 것까지가 작가의 구상이다. "배우는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는 존재잖아요. 본래의 자아와 다른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자신의 페르소나, 두 개의 사람이 영원히 돌아간다고 했어요." 김기라 작가는 파워풀한 추구 속엔 '!'을 담은 이 작품에,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하지원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녹여냈는 설명도 덧붙인다. 두 개의 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과거에서 미래로 일정 속도로 흐르는 시간/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원을 켜면 발산하는 빛이 마치 무척의 머리 뒤에서 나오는 광배처럼 보이는 것도 한다는 대목에서는 불로 신자인 하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빛, 오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빛과 에너지를 꺼뜨리지 않도록 간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당당하고 싶는데 자신감을 잃는 순간에는 내면에 집중해서 나의 불빛을 상상해보기도 해요." 물론 두 개의 핑크색 원에서 여성의 가슴 그리고 유방암 캠페인의 상징을 읽어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담고도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은 김기라 작가가 덧붙인다. "예술은 상상계에 있으니까요."

작가 노트

배우 하지원과 콜라베이션한 이 작품은 분홍색의 두 개의 둥근 LED 조각, 그리고 하지원의 사운드 내레이션을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은 배우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둥근 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영원을 상징하며 보호막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성의 에너지인 동시에 근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